

연중 제16주일(나해)-07월 22일

시편 23(22), 1-3 ㄱ. 3 ㄴ-4. 5. 6 (◎ 1)

손상오 신부 작곡

Fine

주님 - 은 나의 목 - 자 아 쉬 올 것 없 어 라.

1.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 라.
 2.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 네.
 3. 원수들 보는 앞에서, 제게 상을 차려 주시 고,
 4. 제 한평생 모든 날 에,

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 시 고,
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 여 도,
 머리에 향유를 발라 하 주 시 니,
 은총과 자애만이 따 르 리 니,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 어,
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 다.
 제 술잔 넘치도 록
 저는 오래오 래

D.C.

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 네.
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 다.
 가득 하옵니 다.
 주님 집에 사오리 다